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

2016년 가을학기 개강안내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계	프로그램 명	요일/시간	형식	강사
1쪽지 고등부	개념 없는 인간? 또는 개념 있는 인간 - 경험적으로 성장하는 인간	9월 30일 개강 매주 금요일 (총6강), 저녁 7:20 ~ 9:20	강의/토론	박현진 (전남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2쪽지 고등부	한나 아렌트가 들려주는 전체주의 이야기	9월 29일 개강 매주 목요일 (총6강), 저녁 7:30 ~ 9:30	강의/토론	정소라 (전남대 철학과 박사과정)

신청정보

신청기간 : 2016년 9월 1일 ~ 9월 30일
강의기간 : 2016년 9월 29일 ~ 11월 4일
수강료 : 쪽지 당 각 8만원
문의 : youthphilo@hanmail.net
010-9884-0166 (백송이)

신청방법

- ①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youthphilo@hanmail.net로 보낸다.
- ② 아래 계좌에 수강료를 입금한다. 끝.
 - * 광주은행 : 074-107-013759
 - * 예금주 : 전남대철학연구교육센터

* 강의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층 210호 강의실

* 다음 카페_ <http://cafe.daum.net/youthphilo> (전남대 철학교실 또는 청소년 철학교실 검색)

 twitter.com/youthphilo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인간다운 삶을 고민하다 16>

개념 없는 인간? 또는 개념 있는 인간 - 경험적으로 성장하는 인간

하나의 개념은 단순히 말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① 개념이란 무엇이며, 흔히들 말하는 ② 개념 있는 삶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려 합니다. 자신이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나 또는 개념 있는 삶을 살고 싶은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강의자 : 박현진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강의 대상 : 고등학생

강의 일자 : 2016년 9월 30일 ~ 11월 4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20분~9시 20분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10호

* 수강인원 :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9월 30일	개념 없는 평범한 일상의 악(惡)	강의/토론
2	10월 7일	『내일을 위한 시간』	강의/토론
3	10월 14일	개념 없는 놈? 개념 있는 놈?	강의/토론
4	10월 21일	일상 속에서 진행되는 개념의 문제들	강의/토론
5	10월 28일	개념 있는 일상 살아가기	강의/토론
6	11월 4일	개념 있는 인간의 진짜 의미 : 경험적으로 성장하는 인간	강의/토론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들려주는 전체주의 이야기

강의자 : 정소라 (전남대 철학과 박사과정)

강의 대상 : 고등학생

강의 기간 : 2016년 9월 29일 ~ 11월 3일

강의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수강인원 :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아렌트는 유대인이며, 여성이며, 망명자 신분의 철학자였다. 그녀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목도했으며 그들의 만행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면서 『전체주의의 기원』을 썼다. 또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는 나치 전범 재판을 보며 ‘악의 평범성’이라는 새로운 테제를 제시한다.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일 수 있으며, 악행의 동기가 ‘무사유’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룰 것은 아렌트의 사유들을 통해 악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 이슈들과 연결하여 그 원인과 치유책을 나름대로 찾아보는 것이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교재 및 자료
1	9월 29일	오리엔테이션 : 한나 아렌트는 누구인가	김선욱, 『한나 아렌트가 들려주는 전체주의 이야기』,
2	10월 6일	전체주의와 유대인 학살 문제 : ‘안네의 일기’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세계사와 유대인 혐오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3	10월 13일	감상과 토론 : 홀로코스트 영화 『디 벨레』를 보고	영화 『디 벨레』
4	10월 20일	시사 토론 : 우리 주변의 전체주의적 요소들, 원인과 치유	
5	10월 27일	감상과 토론 : 영화 『더 리더』를 보고	영화 『더 리더』
6	11월 3일	‘악’의 속성 : 악마를 보았다? 악이 평범하다는 말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청소년 철학교실

1. 청소년 철학교실의 탄생 배경

청소년 철학교실은 2005년 여름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철학교실>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빛고을 철학교실은 <교사를 위한 윤리학>과 <청소년 철학교실>, <기초 라틴어 강좌>, <기초 희랍어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06년 전남대학교 철학과가 정부의 BK21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함으로써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빛고을 철학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철학교실>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인문강좌>로 세분화되었고, 현재 청소년 철학교실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주관으로 각 계절마다 (1년 4학기) 다양한 주제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철학교실의 운영 목적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성인들 못지않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기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혹은 ‘왜 살아야 하는지’ 등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묻고 대답해볼 기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전남대 <청소년 철학교실>에서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좁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넓게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청소년철학교실 외부강의 운영안내

인문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 철학교실 개설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청소년 철학교실은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와 협약 하에 강사가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출장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는 1꼭지 당 8회(주 1회, 2시간)로 이루어지며, 원활한 토론을 위해 참여자는 20명 내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획 의도나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과 운영방식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철학교실 출장 강의는 2015년을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약 2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외부 출강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youthphilo@hanmail.net).